

한식 텃밭 광주에 세계 음식 창업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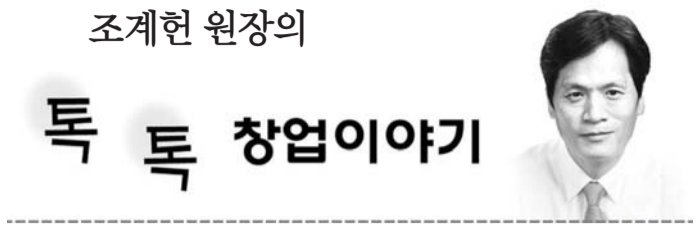
중·일식 넘어 佛·멕시코 등 각국 음식 찾는 사람 늘어 中 양꼬치·日 회 초밥·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개업 잇따라

#. 지난 2014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프랑수아식 전문점 '로니프' 김용인 사장은 '궁중요리전수자' 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요식업계에 발을 내딛었다. 어머니를 따라 한식의 뒤를 이을까 고민을 거듭하다 프랑수아식점을 열게 됐다. 개업 초기 대중적이지 않은 음식이었던 탓에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 들어 외국음식 열풍이 불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 중국식 양꼬치 전문점 '장백산'도 최근 외국음식 인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골목길 허름한 본점에 손님아 몰릴듯 몰리면서 인근에 본점을 낸 것도 모자라 광주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상무지구와 동구 충장로 등에 직영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식이 강세를 보였던 광주지역 외식업 창업 현장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중식과 일식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외국음식 창업에 나서려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외국음식전문점 사업자는 9492명으로 지난해 9496명에 비해 0.04%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일식전문점은 전년 209명에서 올해 251명으로 20.10%가 증가했고, 기타외국음식전문점 역시 315명에서 340명으로 7.94% 늘었다.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줄어

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식과 외국음식 음식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식전문점의 경우 서구가 60명에서 76명으로 26.67% 늘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구 46명→58명(26.09%) ▲동구 22명→26명(18.18%) ▲남구 31명→36명(16.13%) ▲광산구 50명→55명(10.0%) 순이었다. 이처럼 일식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회와 초밥 등 정통적인 일식을 넘어 최근 일본가정식과 달걀, 스테이크, 라멘(일본 라면) 등 다양한 일본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각국의 외국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기타외국음식전문점 사업자는 남구가 지난해 31명에서 43명으로 38.71% 늘어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동구 79명→85명(7.59%) ▲광

산구 80명→84명(5.0%) ▲서구 69명→71명(2.90%) ▲북구 56명→57명(1.79%) 순이었다. 외국음식전문점 창업은 중국식 양꼬치에 이어 베트남 쌀국수를 필두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 태국 음식점도 잇따라 문을 열면서 지역 내 동남아음식점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또 인도와 내팔, 멕시코,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을 창업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면서 점차 외국음식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푸짐하고 손맛이 뛰어난 남도음식이 강세인 광주에서도 다양한 맛과 음식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외국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도 외국음식점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메뉴유행의 흐름에 편승할까 말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 있다면 가장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업계가 아닐까.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메뉴들은 일부 브랜드들이 시도하여 반응이 좋은 메뉴들에 대한 타 브랜드들의 빠른 벤치마킹을 통해 몇 가지 뚜렷한 유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건 바로 중국식 소스와 조리방법을 활용한 중국풍 메뉴들의 본격적인 부상과 떡볶이, 썰러드, 스파게티 등 다양한 대중적인 메뉴들과의 콜라보형 메뉴 그리고 매운 메뉴들의 선전을 들 수 있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치킨업계의 특성상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늘 새로운 메뉴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매출확대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분야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마치 국내 IT업계가 그런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속도가 유난히 빨랐던 것처럼 요즘은 치킨업계도 그런 치열함이 새로운 메뉴들의 경쟁시대로 업계에 진입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런 흐름이 단순히 치킨업계만의 상황이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나 기존 자영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외식사업자들은 그런 새롭거나 떠오르는 메뉴들을 벤치마킹 후 개발하여 인기메뉴들의 유행의 흐름에 편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행하는 메뉴들이 풀린 후 유행의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행메뉴에 가깝게도 느껴지기에 그냥 묵묵히 기존 메뉴들만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하게 될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외식업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외식업계도 이제는 메뉴가 단순히 유행메뉴나 룬런형이냐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의류처럼 빠른 유행의 흐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행을 외면하고 스테디셀러형 메뉴들만으로 매장을 운영하려 한다면 아마도 소비자들의 시각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업소로 인식되어 갈수록 고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유행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나 치부하기 보다는 새로운 흐름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 외식업계도 의류업계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야 하고 후발주자들은 쫓아야 하며 그 트렌드가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서 또 바뀌면 그 역시 또 편승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기존 스테디셀러형 메뉴에 대한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마도 운영의 정석일 것이다.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메뉴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고 새로운 유행메뉴들은 새로운 친구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만으로 길고 긴 인생을 살 수 없기에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인생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유행메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고객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향상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유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연속이라고...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3분기 신설법인 감소 전년보다 1113개 ↓ 4.4% 줄어

올해 3분기 신설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신설법인은 2만4061개로,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됨에도 법인등록일수가 3일(64일~61일) 감소한 명칭 효과 때문에 지난해 동기 대비 1113개(↓4.4%) 감소했다. 추석 연휴가 9월 중에 포함된 2015, 2016년 3분기와 비교할 경우 신설법인은 각각 684개, 655개 늘었다. 같은 이유로 9월 신설법인 또한 6416개를 기록,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983개(↓23.6%) 감소했다. 3분기에는 도·소매업(5554개·23.1%), 제조업(4620개·19.2%), 부동산업(2359개·9.8%), 건설업(2259개·9.4%) 순으로 설립됐다. /연합뉴스



2018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내년도 사업시행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내년도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장 확보, 컨설팅, 참가자 모집 등 사업 운영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민간 법인·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가

광주대 이상아 학생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 특별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간호학과 이상아 학생이 '2018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상아 학생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원형 방장'로 특별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대 창업지원단 등이 공동 주관한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분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엔 광주대팀 등 전국에서 예비창

업자 60개 팀 120명이 참가해 팀별 아이디어 회의를 거친 뒤 멘토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별했다. 최완석 광주대 창업지원단장은 "교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전국대회 출전 경험은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확산 뿐 아니라 창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를 지속 발굴·육성해 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4차 산업분야 기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로스크린, 전동로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로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태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 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시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운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시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